

### 조지연 의원,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아동 비율 낮추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보다 세심한 돌봄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현

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3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은 2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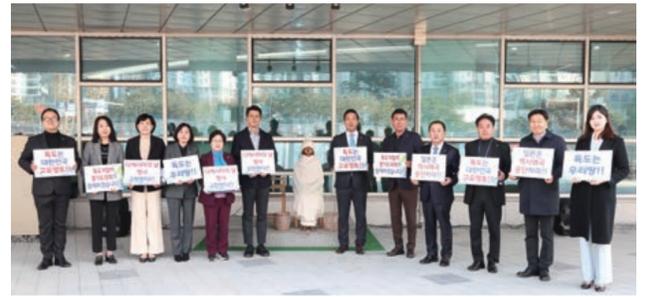
조 의원은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촘촘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귀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러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민수 기자

###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 송도하수처리시설 입찰 문제 제기



최근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이 발주됐으나, 1차 입찰에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국·남동)에 따르면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

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닌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같은 방식이 공법·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 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다.

일부 인천 업체는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기업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실질적인 기술 참여나 공정 배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분 참여에 그치고 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점 필요성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입찰이 반복될 시 공법 제안이나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경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경쟁 구조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로 초래된 결과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사업 발주 이후의 관리·감독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발주한 민간위탁평가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평가위원과 실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적 투명성과 사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춘원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천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영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관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수주 여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전 과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하린 기자

### 웅진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마무리



웅진군의회의장 이의명은 지난 20일, 1일간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날 본회의는 의장 이의명의 부재로 김영진 부의장이 주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의명 의장이 발의한 「웅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의장 부재로 김영진 부의장이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해상 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종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이종선 의원이 발의한 「웅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웅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민에 의원이 발의한 「웅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중 조례안 심의에서는 「웅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됐으며, 「웅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동의안 심의에서는 총 8건 상정돼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 시설 무상사용 허가」 등 7건은 원안가결, 「덕적진리 가공체현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보류됐다. 이와 함께 「구청사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안」 또한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웅진군의회는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민에 의원과 김경협 위원, 김상범 위원을 선임했으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예산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심하린 기자

### 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3월 24일 개최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23일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 군포시청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들이 발의한 20건의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안을 공지했다.

각 안건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길호 의원 1건(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우현 의원 1건(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훈미 의원 5건(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경원 의원 7건(군포시 의료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4건(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1건(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으로 구분된다.

송민수 기자

### 김병전 의장, 부천FC1995 출정식 참석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은 2월 22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부천 FC1995 시민프로축구단 2026시즌 출정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2026시즌 개막을 앞두고 1부 승격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새 시즌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전 의장은 "1부 승격 이후 맞는 첫 출정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

르다"며 "선수들은 관중의 응원 속에서 더 큰 힘을 낸다. 많은 시민께서 경기장을 찾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구단 회원으로서 흥경을 직접 찾아 응원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응원 문화가 구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수 기자

